

10/18/21

설교 제목: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19 장 1-25 절

(출 19: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삼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 19:2) 그들이 르비딴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 19: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출 19: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 19: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 19:7)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출 19:8)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출 19: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뽀뽀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출 19: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출 19:11)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출 19:12)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출 19:13)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출 19:14)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출 19:15)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출 19:16)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뽕뽕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 19:17)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있는데

(출 19:18)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용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 19:19)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출 19:20)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출 19: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출 19:22)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출 19:23)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출 19:2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출 19:25)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기에 본장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당초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만나시려 했으나 그들의 죄로 인해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때로부터 석 달이 지나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출19: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삼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19:2) 그들이 르비딴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암셋에서 출애굽한 후 숙곳 에담 엘림 신광야 르비딴을 거쳐 이곳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고 비로소 신정
국가의 초석이 되는 율법을 수여 받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의도 곧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출19: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는 이 산에서 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일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출 3: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 3: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 3: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출 3: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출 3:8)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 3:9)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출 3: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 3: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 3: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평생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가슴은 환희에 차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산에서 당신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섬길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족장들에게 구두로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고 저희를 구속하여 당신 백성을 삼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들과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출19: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베풀기 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역사들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당신께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눈물이 나도록 절절히 배어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이 주는 율법을 지키면 당신의 소유가 되고 당신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당신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출19: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19:7)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출19:8)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로 죄로 인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해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 값에 팔린 인간은 구속으로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계 만방을 향한 당신의 구속 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중재자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성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왕 백성 땅 이 세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 필요한데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고 하나님과의 복된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데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고대 근동의 계약법과 마찬가지로 쌍무 언약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행동으로 충족시켜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롬 10: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편무적인 은혜 언약으로 언약을 새롭게 갱신시켜 주십니다.

그 대상도 유대인에게만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인류로 넓혀 주십니다.

실로 조건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할 것을 명하십니다.

(출19: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뽀뽀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출19: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출19:11)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출19:12)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출19:13)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출19:14)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출19:15)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이 뽕뽕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것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이러나지 않도록 당신의 모습을 구름으로 가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임재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모세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하고 귀로 생생히 듣게 함으로써 앞으로 모세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제 삼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침범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어디나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그곳에는 어떤 부정한 것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처소를 침범하는 경우 그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근본적인 거리감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삼일째 되는 날 아침 시내 산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함께 뽕뽕한 구름 사이로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삼일을 기다리게 하신 것은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 언약이 갖는 의미의 중대성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강림하실 때에 연기가 시내 산을 뒤덮었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출 19:16)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뽀뽀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 19:17)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출 19:18)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 19:19)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출 19:20)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삼일 전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에 다 행하겠노라고 호엄장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엄을 목격하자 두려움에 사로 잡힌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중재자로 모세를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체결을 속개하십니다.

(출 19: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출 19:22)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출 19:23)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올라 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은 근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출 19:2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출 19:25)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택해 당신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덕분입니다.

구속은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입니다.

(벧전 2: 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